

研究論文

육당 최남선의 아동문학사적 위상과 의의

— 아동문학 태동기의 풍경 —

임성규*

- I. 머리말 : 아동문학의 기원에 대한 질문
- II. 아동문학 태동의 시대사적 조건 <참고문헌>
- III. 최남선의 아동문학사적 위상과 좌표 <국문요약>
- IV. 최남선 아동문학의 역사적 의미

I. 머리말 : 아동문학의 기원에 대한 질문

아동문학 연구와 아동문학사 연구는 아직도 개척 준비기라 할 정도로 다양한 연구 담론을 통한 다원적 시각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문학 연구사의 통시적 흐름에서 볼 때, 지금까지 몇몇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해 오던 ‘아동문학(兒童文學, children’s literature)’이란 학문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의해 발전적 면모를 확충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now and here)’의 아동문학 연구 현황인 것이다. 그리하여 아동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 간행물들이 앞 다투어 발행되고 있으며 독자 사회학의 견지에서 아동문학에 관심을 둔 다양한 계층의 독자층에게 아동문학 작품이 창작되어 향유되고 있다. 그것은 문학의 위기 혹은 죽음이란 슬로건에서도 엿보이듯 성인을 상대로 한 문학 작품은 실제 독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지만 아동문학 작품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등에 업고 활발한

소비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가히 아동문학에 있어서 ‘제2의 도약기’라는 수사가 적실하게 어울리는 시기적 국면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문학을 둘러싼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열풍과는 달리 학문적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할 근현대 아동문학사 연구는 자료의 미비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증주의적 고찰 작업의 미비 등을 이유로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의 국면에서 판단해 볼 때 시대적 한계와 이념적 편향을 내장한 현대 아동문학사 한편과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문단 체험의 관점에서 접근한 약사(略史)와 회고담이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을 뿐 문단 논리를 극복하는 총체적인 근현대 아동문학사 기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¹⁾ 또한, 아동문학 비평사, 아동문학 사상사, 한국근대동화사, 한국근대동화시사와 같은 분화된 학문적 접근은 아동문학 연구 인력의 부족과 일차 자료 확충 및 수집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동문학 연구를 위한 인적 자원이 한 지역이나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특정 학맥을 통해 전수되는 근대 아동문학 자료의 문제로 인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소수의 경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적 실태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실정에서 아동문학 연구 장(場, field)의 흐름을 폭넓게 에둘러 볼 때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전국적인 학술단체가 이제 막 도약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는 지점에서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아동문학을 심도 있게 탐구하려는 인적·물적 노력들이 결집되어 아동문학 연구와 아동문학사 연구를 공고히 하기에 힘써야 한다.²⁾

1) 일례로 카프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문학인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부재한 형편이다. 또한, 문단 시대를 거쳐 오면서 보수 편향적 논리의 특색으로 인해 좌파 아동문학에 대한 접근은 금기시되어 왔으며 동시사, 동화사, 비평사, 사상사와 같은 분화된 접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윤석중, 『韓國兒童文學小史』, 『兒童文學의 指導와 鑑賞』(대한교육연합회, 1962); 윤석중, 『아동문학 주변』, 『대한일보』, 1969. 4. 7-1970. 12. 10; 이계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일지사, 1978).

2)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아동문학학회>나 이제 첫발을 내딛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의 활동을 통해 시대별, 쟁점별 연구 성과를 온축(蘊蓄)해 나가는 아동문학의 다원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나 문단의 편 가르기를 넘어서 상상과 공존을 지향하는 대승적인 연구철학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초등학교 문학 교육의 자장(磁場) 안에서 아동문학 연구 및 아동문학사 연구가 어떤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어국문학적인 시각의 아동문학 연구와 변별되는 국어 교육적인 관점에 입각한 아동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탐구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도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아

*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아동문학 전공(rocker9502@hanmail.net).

그런 의미에서 근대 아동문학 자료의 발굴과 그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전통 아동문학론에 담긴 아동문학 교육에의 함의(含意) 그리고 시대별·작가별 각론을 마련하는 일 등이 현재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다. 현재의 아동문학 담론이 위치한 흐름에서 판단해 본다면 무관심의 벽을 뛰어넘어 아동문학 비평의 적극적인 모색과 아동문학 작품 출간이 흥수를 이루고 있지만 근현대 아동문학의 유산을 재인식(再認識)하고 과거와 현재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메타적이고 반성적인 점검 작업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축(蘊蓄)될 때에 아동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투시하여 조감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에 터할 때, 초창기 아동문학의 형성과 기원에 관한 질문은 아동문학의 첫 단추를 꿰고자 하는 의식적 소산임에 틀림없다.³⁾ 그러므로 아동문학의 형성과정과 기원을 탐구하는 생산적인 작업이 학위논문의 형식을 빌려 부단히 전개되어 온 것이 아동문학 형성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적인 현황이다. 그것

동문학은 단순히 국문학에 협소한 테두리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과 아동이라는 작가—독자 혹은 비평가—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구도에서 계몽적 자질이 아동문학의 핵심적 속성 중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교훈의 주입이 아니라 아동문학도 정당한 예술의 일환으로써의 문학임을 인정하는 바탕에 기반을 둔 계몽성인 것이다.

3) 권복연은 최남선의 활동이 아동문학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대적 의미의 아동관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정환을 주목하고 있으며 김화선은 최남선의 활동을 ‘태동’으로 방정환의 활동을 ‘발전’으로 수사를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유일한 아동문학사인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의 기본 논지와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진 연구자인 박숙경과 심명숙 그리고 염희경은 최남선이 아닌 방정환에게서 아동문학의 기원을 찾은 원종찬의 비판적 견해에 동의하며, 이재철의 연구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은 최근 조은숙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1910년대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기와 자료 섭렵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 연구 성과들로 아래를 참조할 수 있다. 권복연, 『근대 아동문학 형성 과정 연구: 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연세대 석사논문, 1999);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2002); 원종찬,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140~152쪽;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과정 연구』(인하대 석사논문, 1999); 심명숙,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인하대 석사논문, 2002); 염희경, 『한국 근대 아동문단 형성의 ‘제도’』, 『동화와번역』, 11집(건국대 동화외번역연구소, 2006), 197~230쪽;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2005); 조은숙, 『‘아동의 발견’이라는 화두와 아동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형』,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9~24쪽.

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아동문학 운동을 각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현재적 질문에 대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입장에 선 구경꾼(spectator)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을 투여하는 관찰자(observer)의 입장에 서서 근대 아동문학의 출발을 고구(考究)해야 하는 것이다.⁴⁾ 그러한 고로 최남선(崔南善)의 아동문학에 대한 탐사는 그러한 시원(始原)의 지점에서 발원하는 것이며 한국 아동문학의 기원을 탐색하려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 사실상 최남선의 아동문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 세부적 면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현재의 아동문학 연구와 아동문학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어떠한 단초를 내함(內含)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 입각한 최남선 아동문학의 재평가(再評價)는 독자적인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최남선과 그의 아동문학 활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육당 최남선의 아동문학사적 위상과 좌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그것이 지닌 현재적인 의미를 추출해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남선이 남긴 아동문학론과 번역물 그리고 근대 잡지를 두루 확인하면서 최남선의 아동문학이 지니는 위상과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문학의 출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통시적 흐름을 고찰할 수 있는 기초적 거점이 마련될 것이며, 아동문학 연구와 아동문학사 연구의 시기가 조우할 수 있는 결정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아동문학 태동의 시대사적 조건

아동문학은 자연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적 인식의 산물이며 서양을 통해 유입된 근대성의 맹아가 싹트는 지점에서 발

4) Crary, Jonathan/임동근(외 역), 『관찰자의 기술』(문화과학사, 2001), 11~46쪽.

5) 그러므로 이러한 불모적인 상황에 터할 때, 최남선에 대한 평가는 방정환과의 대차대조를 통해 상호 비교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논의의 대부분은 아동문학의 효시(嚆矢)가 누구인가에 함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아동문학 연구사의 흐름에서 볼 때 방정환을 한국 아동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원한다. 물론 그러한 근대성의 발현이 비록 서양과 동양 혹은 일본과 조선을 우열 관계나 지배/종속 관계로 바라보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시각에 침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과 아동문학은 철저하게 근대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년’으로 상징되는 동화적 주체는 근대문학의 성립기에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⁶⁾ 그것은 근대 이전까지 봉건적, 가부장적 구도에 의해 억압받으며 수준 낮은 것으로 폄하되어 왔던 아동과 여성이라는 존재가 근대를 넘어 오면서 비로소 인격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 터해 있다. 집단이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 새롭게 호명되는 문명개화와 개성의 발견이란 흐름에 서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의 경우 근대 이전까지 어리고 어리석은 존재 혹은 어두운 존재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그 명확한 증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제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한 것이 근대성의 또 다른 부면이며, 그로 인해 아동은 그 이전까지의 냉대와 무관심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심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육당 최남선이 신문학 운동을 벌이던 1900년대 후반에서 1910년대까지의 시기적 흐름은 “새로움에 대한 열망으로 몸부림쳤던 과도기”⁷⁾란 표현처럼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통해 중세의 봉건적 미망(迷妄)을 넘어 부강한 근대 국가와 민족을 건설할 수 있다는 기대 의식이 팽배한 시절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밀어닥친 개화 이후 한일합방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의 병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주체의식이 꺾인 시기였으며 총독부 기관지를 제외한 언론의 폐합으로 인해 계몽과 문화 그리고 민족의 진로 모색이 곤경에 처해있던 시절이었다. 그것은 무단통치로 대변되는 1910년대가 상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자생적 민족 문화 육성이 곤란한 지경에 있었다는 점에서 육당의 잡지 간행이 신문학과 문화 운동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08년에 첫 발걸음 댄 《소년》(1908. 8~1911. 5, 통권 22호)지의 계몽성은 ‘나라만들기’와 ‘민족지키기’의 기획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했다는 점⁸⁾에서 민족

6) 남기택, 「동화적 상상력과 근대문학의 성립」, 『인문학연구』, 32권 1호(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9쪽.
7)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262쪽.
8) 최남선은 일종의 근대 문물과 문화 그리고 문학 기획을 통해 새로운 근대성의 발현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을 통한 새로운 문물과 지식의 소개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문화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단초들을 그 안에 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미래지향적인 국가(state)와 민족(nation)을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저항적인 요소를 내함(內含)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케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사적, 역사적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일체의 억압과 봉건적 가부장제의 억압이라는 두 겹의 압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아동’을 당대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질문은 아동문학의 ‘태동’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근대적 시선에 의해 발견된 아동이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 ‘아동관’이라는 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내재적 본성에 대한 고찰이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며, 근대적 의미의 아동문학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융출했던 태동 혹은 형성기의 아동문학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기에 대한 발견과 아동문학의 출발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아동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은 곧바로 아동문학의 기원을 밝히는 일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사회학적 시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동은 근대의 방법적 시선에 의해 새롭게 ‘발견’(가라타니 고진)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근대성의 맹아와 함께 가족사의 맥락에서 새로운 실체로 ‘탄생’(필립 아리에스)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관점은 이미 보편화되어 공인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⁹⁾

그러하여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입에 의해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와 민족정신이 위협받던 개화 초기의 상황을 딛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육당 최남선의 계몽적 교화 사상이 전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차래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인쇄기기를 구입하여 조선에 돌아온 육당(六堂)은 잡지 간행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문화적 계몽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남선의 소년 시절 체험으로서 일본 유학 당시 접하게 된 일본의 출판문화는 그에게 큰 충격과 자극을 안겨주었으며 그에게 새로운 시도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즉, 당시의 세계사적 출판 경향에

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1910년대 최남선과 竹內錄之助의 활동을 중심으로」,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73-310쪽; 최현식,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1): <소년>지 시(가)의 근대성」, 『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식』(소명출판, 2007), 69쪽.
9) 柄谷行人/박유하(역), 『아동의 발견』,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2005), 151-179쪽; Ariès, Philippe/문지영(역), 『아동의 탄생』(새물결, 2003).

맞춘 잡지 간행을 목표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의 신문관(新文館)을 차린 그는 약관(弱冠)도 안 된 나이에 신문화 운동의 정신을 담은 종합잡지 《소년》을 발행한다.¹⁰⁾ 소년의 신분으로서 독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 ‘소년(少年)’을 낸 셈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일찍부터 깨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자신과 같은 소년들이 장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그 주요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한다.

물론 육당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육당의 사상이 일본의 것을 직수입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에서도 외국 이론의 수입상이란 말은 공공연히 회자되거나 국외보다 한 사이클의 간격을 두며 누가 먼저 그것을 들여오느냐에 따라 학계의 구도가 재편되는 역기능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이다. 그것은 훗날 친일 행위로 곤욕을 당한 만년의 그의 삶과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과오를 범한 최남선을 아동문학의 첫 머리에 다룬다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표출을 가져오기도 한다.

최남선은 그의 일본 유학 생활에 있어서 관비 유학생 시절의 경우 무지하고 타락한 나이든 동료들의 추태로 인해 불편한 체험을 겪으면서 첫 번째 유학은 중도에 하차하게 되고 두 번째 유학의 경우 ‘모의국회 사건’으로 인해 자진하여 그만두게 됨으로써 두 차례 모두 자진 퇴학으로 귀결되었다. 일본 문화의 세례가 짧은 기간으로 끝났다고는 하나 일본의 근대문학이 최남선에게 미친 영향은 다대하다고 판단된다.¹¹⁾ 그것은 서구문학의 일본 번역본으로 공부한 육당이 다시 그것을 중역하여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늦어진 개화로 인해 정당

10) 최남선의 『소년』지가 일본의 博文館에서 발행한 이과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少年世界』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박문관은 1905년 『太陽』, 『文藝俱樂部』, 『少年世界』를 발행하였으며, 최남선은 일본 유학 기간 중 일본의 출판문화에 큰 자극을 받아 한국에서의 출판 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大竹聖美,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1895-1945)』(청운, 2005), 39-55쪽.

11) 육당의 학교 공부가 “글방에서 열 두 살까지 한문 공부를 했고, 열 세 살 적에 경성학당에 들어가 삼개월 동안 일본말과 산술을 배웠고, 다시 열 다섯 살에 일본에 건너가 동경 부립 제일 중학교에서 삼개월 가량 공부하고, 이번에 와세다 대학 고등 사범부에서 또 삼개월 동안 강의를 들은 것이 학교 교육의 전부”란 사실은 이와 호응하는 것이다. 조용만, 『육당 최남선』(삼중당, 1964), 61쪽.

한 의미의 근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근대 사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조국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목표 수립과 자극의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경험은 신학문에 대한 공부와 신문물의 수용이 오히려 그의 민족정신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그것이 위기에 처한 민족의 새로운 길 찾기를 자라나는 소년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데에서 찾았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한 취지가 아래에 제시한 창간사격인 《소년》지의 권두언에 나타나 있다.

나는 이 雜誌의 刊行하난 趣旨에 對하여 길게 말삼하디 아니호리라. 그러나 한마디 簡單하게 할 것은 **우리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 하면 能히 이責任을 堪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 이 雜誌가 비록 덕으나 우리同人은 이 目的을 貫徹하기 爲하여 온갖方法으로 써 힘쓰리라. 少年으로 하야곰 이를 넓게하라 아올너 少年을 訓導하난 父兄으로 하야곰도 이를 넓게하여라.¹²⁾

외세의 침입과 신문화의 전파로 어수선하였던 당대의 상황에서 조국의 운명이 그 숨을 다할 지경에 처한 위기의식의 발로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깨침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소수 선각자가 무지한 국민을 향해 발언하고 계몽”¹³⁾하려는 고정 틀에 갇혀 있다는 판단도 일면 수긍이 되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세파를 헤쳐 나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자 하는 의식과 함께 그 계몽의 역할을 부모 세대의 참여로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소년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을 조력하는 부형(父兄)과도 연결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주지하다시피 ‘아동’ 담론은 당시의 ‘가

12) 최남선, 「권두언」, 《소년》, 1년 1호(신문관, 1908, 11. 1).

13) 권보드래(외), 『《소년》과 《청춘》의 창: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9쪽.

14) 최남선을 아동문학의 출발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근대 계몽기 가족 구도의 재편이다. 그것은 이 시기에 자녀를 부모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다는 점과 자녀를 국가주의에 근거해 사회의 ‘공물(公物)’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최남선의 ‘소년’과 연결망을 확보한다. 전미경은 조혼타파론을 언급하면서 “가족 안의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의 ‘어린이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소명출판, 2005), 69-77쪽 참조.

정개량'이라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¹⁵⁾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가족 구도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요구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의 예속물이었던 아동은 독자적인 기의를 조금씩 획득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부상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대성 발현의 상황적 맥락과 시대사적 조건에서 잡지 간행과 출판문화 운동을 통해 아동문학의 시초적인 바탕을 마련한 최남선 아동문학에 대한 좌표 설정과 의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최남선의 아동문학적 위상과 좌표

아동문학의 기원을 고찰하는 입장에 설 때, 그 시초의 위상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완전한 의미에서 어린이의 기의를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것은 소과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 운동에 이르러서야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정환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고도절해에서 아동문학 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란 점에 문제성의 일단이 있다. 실제로 1910년대부터 《청춘》을 비롯한 각종 현상모집에 방정환이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방정환은 “우연한 기회로 崔南善氏의 《青春》雜誌를 보고 興味가 끌리어 著者라는 匿名으로 作文을 投書하였더니 그것이 當選되야 誌上에 실린것”¹⁶⁾이라고 당시의 투고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고 경험은 그의 아동문학에 대한 열의를 지속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정환이 투고 작품을 발표하던 그 시기에 최남선은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을 통해서 보다 독자 대상을 아동에게 초점화한 간행물들을 발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¹⁷⁾

15) 형성기 아동문학 연구는 근대 계몽기와 식민지 시대 가정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와의 간학문적 작업이 뒷받침 될 때 보다 풍성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미경과 김현숙 외에 1920년대에서 30년대 가정과 아동의 변화를 다룬 김혜경의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김현숙, 「근대매체를 통해본 '가장'과 '아동'인식의 변화와 내면형성」, 『상허학보』, 16집(상허학회, 2006), 79쪽;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창비, 2006)을 참조.
16) 방정환, 「사라지지 않는 記憶: 處女作發表當時의 感想」, 《조선문단》, 6호(1925. 3), 66쪽.
17) 박숙경은 신문관의 소년 잡지가 청년기를 분할해냄으로써 훗날 아동기의 분할을 가능하게 조력

이러한 맥락에서 최남선과 아동문학의 연관을 찾는 단서가 되는 것이 잡지의 이름이자 독자 대상인 ‘소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소년과 그 부형”을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욕망에 부응하는 편집 체제를 유지¹⁸⁾하면서 신지식을 전달했던 《소년》지를 어떠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형성기 아동문학 연구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즉, 최남선과 방정환의 이분법적 변별 이전에 우선 최남선 자체 내부에서 《소년》지와 1910년대 잡지들 중 어느 쪽에 아동문학과의 연관 증점을 부여할까 하는 고민과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독자 대상인 ‘소년’의 의미가 지금의 의미와 다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것은 앞에서 피력된 취지의 지향점에 준하여 판단해 볼 때 넓게 보아 오늘날의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화와 계몽을 그 주요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아동이나 소년 혹은 청소년이란 개념이 어른의 축소판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년’ 즉 아동이 새롭게 발견되었는가 근대 아동문학의 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의미는 “상투 틀고 쪽찐 청춘남녀”(윤석중) 혹은 “老年에 대해서 少年이란 뜻”(조용만 외)으로 파악되거나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신세대라는 뜻”(원종찬)에서 보듯 아동을 배제한 청년이라는 입장이 주도적인 해석으로 공인되어 왔다.¹⁹⁾ 그러므로 최남선을 아동문학 태동의 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들이 주도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10년대의 《소년》은 신문학 운동의 하나로서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어린이를 분명한 독자층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문학의 전사(前史) 정도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출발을 1920년대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했고, 번역 동화들이 창작 동화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근대적 아동문학 독자층을 육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청년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점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박숙경, 「신문관의 소년용 잡지가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25~38쪽.
18) 정선태, 「번역과 근대소설 문체의 발견: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소명출판, 2006), 46쪽.
19) 윤석중, 『韓國兒童文學小史』,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대한교육연합회, 1962), 9쪽; 조용만·송민호·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민중서관, 1970), 36쪽; 원종찬,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 2001), 144쪽.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소년의 맥락적인 의미가 지금의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에 가까운 것으로 종합된다고 해서 아동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질러 이야기하자면 아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은 일종의 포함과 비율의 문제로서 최남선이 바라본 ‘소년’의 의미는 아동과 청년을 함께 포괄하지만,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청년의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의 비율이 일정 부분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소년과 그 부형을 간행물의 독자 대상으로 설정했음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동과 아동을 기르는 부형까지를 고려 항목에 넣고 있다. 청년일 경우 청년과 그 부형의 의미는 실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910년대에 발표된 논의들을 배제하면서 근대적 아동관과 근대 아동문학의 성립을 1920년대로 간주하는 관점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²⁰⁾ 실제로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 보이》 그리고 《새별》의 경우 《소년》과 비교했을 때 독자 대상이 한층 낮아졌으며 아동과 청년의 혼합에서는 《소년》에 대비해서 청년과 아동 중 아동의 비율이 좀 더 우세한 비중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 예로 《아이들 보이》의 경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율된 흥미로운 어린이 문화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다.²¹⁾ 그렇게 볼 때 1908년에서 1923년에 이르는 근대 아동문학 기원의 시기에서 1900년대에서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로 가면서 점점 아동의 비율이 상승되어 갔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아래의 사실에서 보

20) 우선 아동문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정확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제로 작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양, 극복해야 할 성질의 것이란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남선의 아동문학은 도려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면 타자로서 극복해야 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방정환의 아동문학 운동으로 기점 문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게 될 때의 약점은 아동문학이 공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복수적인 실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의 기점 문제는 중층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 실제로 《아이들 보이》에 대한 연구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 보이》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 텍스트의 독자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아이들’을 배치시키려는 기획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기숙, 「신대한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 생태학」, 『상허학보』, 16집(상허학회, 2006), 237쪽, 최기숙, 「‘어린이’와 어린이 문화의 탄생」, 『어린이, 넌 누구냐?』(보림, 2006), 51-57쪽 참조.

듯 1920년대 《어린이》지의 독자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확인이 전해주는 전복의 시선이다.

그러나 ‘발전’된 어린이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동화의 독자 또한 굳이 ‘어린이’에 한정되지 않았다. 1924~1927년 사이 《어린이》지에는 ‘어린이’ 독자들이 보내온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스스로를 ‘어린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의 연령대는 오늘날과 상당히 달랐다. 오늘날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진짜’ 어린이(7~12세)는 8.8%에 불과하고 중학생(13~15세)과 고등학생(16~18세)에 해당하는 틈에이저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세 이상의 성인 독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²²⁾

위의 기록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대 아동문학 태동기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란 개념이 구별되지 않는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란 개념의 진위를 현재의 개념역과 의미망으로 재단함으로써 의미 혼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어린이》의 경우에도 아동에 비해 청년 독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나 그만큼 당시에 있어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문학과 문화가 청소년 혹은 청년 문화와 혼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입각점에서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에 와서야 비로소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 해방의 정신사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지만, 이미 1910년대 최남선의 간행물들에서 독자인 아동을 의식한 지면 구성이 이루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³⁾ 그것은 아동 존중의 정신이 1900년대는 아주 미약했으나 1910년대에 좀 더 높아지고 1920년대에 와서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정신의 변모 차원

22)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푸른역사, 2003), 216쪽.

23) 단적인 예로 서구 위인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한 것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대한 세 시대의 청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서사적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少年史傳(一): 러시아를 中興시킨 페터(彼得)大帝」, 《소년》, 1년 2권; 2년 2권; 「나폴레옹大帝傳」, 《소년》, 1년 2권; 2년 3권; 2년 6권; 「閔忠正公小傳」, 《소년》, 2년 1권 등에서 확인된다.

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 《소년》의 주요 독자 대상을 9세에서 15세 전후의 보통학교 생도 및 졸업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²⁴⁾ 그것은 최남선의 잡지를 두고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 문학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연구사적 의미망에서 이 문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복잡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연원은 최남선에 대한 각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최남선이 근대적 지식인, 국학자, 잡지 발행인, 작가, 어문교육자 등 다양한 역할을 발휘했다는 점에 기인하는데, 그가 아동문학가란 점은 전체 학문의 맥락에서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춘 김기전을 ‘아동문학 이론가’, 소파 방정환을 ‘아동문학 실천가’로 범주화할 수 있다면, 육당 최남선은 ‘아동문화 개척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동의 맹아가 싹트는 시기에 있어 아동문학을 공고화시키기 위한 제반 문화적 토양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와 최근 일반문학에서의 연구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필자가 내릴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곧, 최남선과 이광수가 아동문학의 형성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아동문학을 하지 않고 성인문학을 하였다고 해서 배제하는 논리는 실제 사실을 기만하는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 후에 성인문학을 위주로 활동했지만 결국 아동문학 초창기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괄호 치거나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지에서 ‘소년’의 의미는 아동과 청년을 모두 포함한 혼성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진정한 아동문학의 출발은 1910년대 간행된 최남선의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에서 비롯하며, 이러한 잡지 간행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아동문학이 출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재철과 원종찬의 의견과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며, 과거 윤석중이 그의 아동문학 약사(略史)에서 언급했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정환과 색동회원들로 대변되는 아동문화 운동과 본격적인 아동문학의 정립은 그 이전시기에 점진적으로 온착되어 온 문화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24) 권보드래, 「‘소년’·‘청춘’의 힘과 일상의 재편」, 『《소년》과 《청춘》의 창: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59~182쪽 참조.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 ‘아동기’에 대한 자각만 결여되었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대한 의식도 마찬가지로 결여의 상황에 있었고, 15~16세를 지나면 성혼을 함으로써 의례히 성인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다는 시기적 국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한 아동 계몽 의식의 표출은 “一日의計는 晨에 있고 一年의計는 元日に 있고 一生의計는 幼少”²⁵⁾에 있다는 최남선의 인식이 창간호에서부터 인생의 출발점인 유년기와 소년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과 “甲은 只今年이 十五歲오 乙은 九歲”²⁶⁾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볼 때 최남선의 ‘소년’ 개념이 어린이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기원 탐색의 입각점에 설 때 아래에서 주장하는 《소년》의 취지와 책무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고 변안동화인 「이솝의 이야기」, 「거인국 표류기」가 담지하고 있는 아동문학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아동문학의 성격이 소년을 ‘活動的進取的發明的大國民’으로 양성하기 위한 ‘공리적 문학관(公利的文學觀)’에 입각점을 두고 있었음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²⁷⁾ 그러한 점이 아래 제시한 발간 취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少年》의 目的을 簡短히 말하자면 新大韓의 少年으로 깨달은사람되고 생각 하난사람되고 아난사람되야 하난사람이 되야서 혼자억게에 진 무거운 짐을 堪當케하도록 교도하자함이라.²⁸⁾

時代의 思潮를 歸一하는 根本으로 新興하는 教育界에 具體한 敎課書를 供給 하려함이 그 第一着의 企劃이엇도다. 社會將來의 樞軸을 擔任할 青年에게 正當한 自覺과 質實한 風氣를 喚起하기 爲하야 雜誌 《소년》을 發刊하얏도다.²⁹⁾

그러므로 계몽의 교화적 목소리가 드세게 울려 퍼지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의

25) 최남선, 「소년시인: 여러분의 뜻을 엇더케 세우시려오」, 《소년》, 1년 1호(신문관, 1908. 11), 5쪽.

26) 최남선, 「갑동이와 을동이의 상중(一)」, 《소년》, 1년 1호(신문관, 1908. 11), 12쪽.

27)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을유문화사, 1975), 282쪽 참조.

28) 최남선, 「소년시인: 소년의 기왕(既往)과 및 장래(將來)」, 《소년》, 3년 6호(신문관, 1910. 6), 18쪽.

29) 최남선, 「십년」, 《청춘》, 14호(신문관, 1917. 6), 7쪽.

에게 위에 민족과 조국의 전진을 의탁하는 최남선의 사상적 관점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학문화 활동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행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것은 “육당 최남선이라는 한 개인의 이념이 어떻게 민족이라는 전체를 고양할 수 있었느냐”³⁰⁾라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자녀 중심론’을 떠올리면 쉽게 암시되듯이 최남선과 이광수의 ‘二人 문단시대’를 넘어 《어린이》지 발행을 통해 아동문학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소과 방정환과의 연결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방정환이 《청춘》의 독자 투고란을 통해 나온 문사들 중의 일인이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방정환은 《청춘》현상 문예의 열렬한 투고자였으며 《청춘》이 폐간된 후 스스로 《신청년》을 창간하여 활동했으며, 그 후 천도교계에서 발행한 《개벽》의 중심인물이었는데 《개벽》이 신문관에서 인쇄된 것에서 보듯 《청춘》과 《개벽》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이러한 폭넓은 시각과 통시적 관점에 설 때 최남선의 아동문학문화운동은 1920년대로 연결되는 아동문학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근대 아동문학의 시원(始原)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IV. 최남선 아동문학의 역사적 의미

가히 최남선은 신문물 도입기에 있어서 거인(巨人)과 같은 존재로 비유될 수 있다. 그것은 근대를 맞이한 조선의 풍경 속에서 대중의 계몽을 통해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설계하고자 한 육당의 자의식이 강력하게 발동된 사례로 기억된다. 그러므로 그의 신문화 운동을 일컬어 새로운 근대성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빚어낸 산물로 평가하는 것은 그리 과도한 점수 매김은 아닐 것이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 상태로 바라본 ‘근대’의 의미와 부합하는 지경을 개척해 나간 것이다.³²⁾ 또한, 그런 계몽의식이 “‘신대한’을 건설할 ‘소년’들의

30) 김윤식, 「<소년>지의 허구성」, 『근대 한국문학 연구』(일지사, 1973), 32쪽.

31)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근대 매체와 근대 언어질서의 상관성』(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311-350쪽 참조.

32) 柳父童서혜영(역), 『번역어 성립사정』(일빛, 2003), 54쪽.

‘용기’와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³³⁾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동문학과의 접촉면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남선의 의식과 실천이 다방면으로 만개하여 있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인물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한 일만은 아니다.

그는 동시대인으로부터 너무 앞서 있었기에 그의 주위는 사면이 모두 쳐너지 있었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신기한 것이었기에 시대는 그에게 ‘무슨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모든 무엇’이 되기를 요구하였기에 그는 문학인, 학자, 사상가, 사업가, ‘저널리스트’, 정치가가 되었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아무 것도 아닌 인물이 된 것이다.³⁴⁾

그리하여 잡지 《소년》을 통해 이 땅의 아동과 청년의 의식을 호명한 육당은 한일합방 이후 무단정치의 엄혹한 세례 속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기원을 형성한 아동 잡지를 출판한다. 그것이 곧 《붉은 저고리》와 《아이들 보이》그리고 《새별》이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잡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재철의 독보적인 자료 정리와 연구 이후 다시 이 잡지들을 세밀히 점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최근에 들어와 아동문학 신진 연구자로 떠오른 조은숙에 의해 《붉은 저고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³⁵⁾ 그것이야말로 아동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 보존과 희귀 자료의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문학 연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연구자의 게으름 탓도 있겠지만, 당시의 아동문단 정황과 아동문학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차 자료 입수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최남선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하는 이유도 자료 부족이 그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3) 최현식, 「1910년대 번역·번안 서사물과 국민국가의 상상력」, 『한국 근대 서사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소명출판, 2005), 195쪽.

34) 유진오, 「序」, 홍일식(저), 『육당연구』(일신사, 1959), 3쪽.

35) 조은숙, 「1910년대 아동 신문 《붉은 저고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2호(한국근대문학회, 2003), 101-135쪽.

그리하여 1910년대에 오면 최남선에 의해 아동을 주요 독자로 삼은 아동 문예 잡지가 발행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우량아 선발 대회가 열렸던 것에서 엿보이듯 ‘어린이기’에 대한 기초적 인식이 이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미완의 작품인 《소년》에 비해 좀 더 아동문학의 본원성과 합일되어 가는 유형의 간행물이 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곧바로 이는 최남선이 《아이들 보이》(1913~1914), 《붉은 저고리》(1912~1913), 《새별》(1913~1915)을 통하여 아동문화 운동을 하던 시기와 일치한다.³⁶⁾ 그러므로 아래의 자료들에서 보듯 부형과 아동이 함께하는 문화 활동에 대한 강조가 뚜렷한 표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本誌는 舊 《붉은 저고리》 以來로 少年文學의 先驅가 되어 江湖의 歡迎을 久蒙한 者라 十一月로부터 內容外形에 一大革新을 加하고 程度를 稍高하여 進學益智上無等한 良師友를 作케 하얏스며 더욱 新文章 造成에 注力하여 우리 語文의 精華를 發揮케 하얏스니 最廉한 價로 最大한 益을 得할 者는 本雜誌外에 更無할 지니라. 本誌에 連載하는 「읽어리」는 이미 京城 各 私立 高等 程度 學校의 必須參考書로 採用을 蒙하얏스며 地方에서도 점차로 採用함.³⁷⁾

本雜誌는 兒童教育에 對하야 深大히 期待로써 發行하느니라 一篇材料-다 極擇精選한 것이라 記事는 小説, 古談, 教訓, 學藝, 傳記, 遊藝等 여러 方面이오 文章은 平易하며 圖書는 精美하야 智德涵養上 最緊切한 機關이 되오니 滿天下 父兄及子弟 諸位는 다갓치 愛護하실 義務가 有하다 하나이다.³⁸⁾

아못조록 즈미와 질거움 가온디 너허주허써 행실을 바로잡고 의사를 놀개하며 아올너 칙 보고 리치 궁리하느 버릇도 안치며 말 만들고 글 짓는 법도 알 니려호노니 이는 아마 온 텃하 부형되신이가 골고로 그 즈데에게 디하야 바라 시는받지라 저의들이 힘은 닳브고 손은 모자랄지라도 한조각 간절혼 뜻과 쓰 거운 정성은 늘 변함이 업실것이오니 이 뜻이 정성이 필경 이 변변치 못흔 신

36) 조형근,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탄생,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새길, 1997), 133~164쪽, 김혜경,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 1997), 222~276쪽.

37) 《청춘》, 1년 3호(신문관, 1914. 12)의 후면 《새별》 광고문.

38) 《청춘》, 1914. 10의 후면 《아이들 보이》 광고문.

문을 감사록 완전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흡족하게 흘줄 아옵시다...그럼으로 저의는 다 저의일을 열심히 도와 주실줄 믿소으며 그럼으로 이 세상 아희란 아희는 다 우리 신문을 사랑하느 동무가 되실줄 믿습니다.³⁹⁾

실제로 이들 아동문학 잡지의 호응은 대단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시기적 분위기와 실증적 사실은 “아동잡지로 《새별》, 《붉은 저고리》등이 나왔고, 《소년》, 《청춘》이 다 이천 부 밖에 찍지 못한데 비하여 《붉은 저고리》만이 삼천부”⁴⁰⁾를 내었다는 회고적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아동 교육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뜻이며, 아동들을 위한 읽을거리의 필요성을 대다수 부형들이 체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계몽기 근대 교육과의 관련이란 측면에서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⁴¹⁾ 그렇듯 부형과 아동이 함께 읽고 배우는 《붉은 저고리》의 선진성은 “感受力 訓練의 好資料滿紙 趣味性養成의 大關鍵在此 百方의 兒童은 愛讀하시오 千方의 父兄은 授護하시오”란 편집 방침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1910년대에 최남선이 발행한 아동 문예잡지들은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의 시원적 자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소년》의 미비함이나 《어린이》의 완결성 사이에 위치하는 중도적이고 과도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최남선의 친우였던 이광수의 평가대로 “유소년과 청소년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남선은 잡지에 빠지지 않고 그의 청춘을 희생하는 의지”⁴²⁾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부정 일변도의 가치 판단을 좀 더 유연한 관점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연성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최남선을 아동문학사에서 배제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며 ‘본격적’이라는 수식어가 방정환에 해당한다면, ‘예비적’이라는 수사가 최남선의 위상과 의미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아동문학에 영향을 미친 최

39) 최남선 발행, 《붉은저고리》 부록(신문관, 1912), 1~2쪽.

40) 최남선, 「한국문단의 초창기를 말함, 『현대문학』, 창간호(현대문학사, 1955), 38쪽.

41)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아래를 참조할 수 있다. 조희정, 「근대 계몽기 초기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41~54쪽 참조.

42) 이광수, 「육당 최남선론, 『조선문단』, 6호(조선문단사, 1925), 88~89쪽.

남선의 공적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제부터라도 최남선 아동문학을 세밀히 탐사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것은 아래 최남선의 논설⁴³⁾에서 보듯 아동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던 최남선의 면면들이 새로운 탐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兒童의 世紀라는 二十世紀는 그대로 朝鮮人 又 朝鮮兒童의 世紀이게 할지니, 이리 함에는 세계의 모든 것을 쓰러다가 朝鮮의 生命을 복도들 것이오 그一部分으로는 世界가 當來時代의 繼嗣者인 小國民 培育을 爲하여 調製貯蓄한 一切 肥料를 그대로 옮겨다가 우리 어린이의 心田에 施給하기에 아모 遲疑와 謙讓을 가질 必要가 업는 것이다. 南洋의 棉種이 우리의 衣料를 살지게 하고 西歐의 豚種이 우리의 胃壁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안더센」이고「하우프」이고「그림」이고「빠른손」이고 모다 들어다가 우리 次代 主人의 健啖大養에 提供하기를 한껏 노력함이 可할 것이다.⁴⁴⁾

V. 결론 및 향후 과제

실로 근현대 아동문학 연구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한 일차 자료의 정리와 수집 및 보존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한 해석 작업이 그것

43) “세계는 一 進行物이다. 그 生命과 價値는 항상 來頭에 잇슬 빛게 업다. 그럼으로 社會의 尊崇은 맛당히 그때 그때 最後의 後繼者인 兒童에게로 集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내켜서 말하면 社會의 健全性 將就力은 그 兒童 中心의 程度에 正比例가 된다고도 할 것이다. 社會의 最大事가 兒童 教育이라 함도 原則에 말미암는 것 國家社會將來의 運命은 그의 兒童에 微驗하라함도 이 原則에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데 兒童의 最大事가 무엇인가 같은 教育이오 教育의 最要點이 무엇인가 같은 그 天稟의 自由로운 發展이오 天稟 發展의 最秘機가 무엇인가 知情意의 圓滿한 調和를 助成 하여 줌이어늘 동화는 實로 知識增長 情操涵養 意志鼓勵의 모든 效能을 가지는 同時에 又 一面 에 잇서서는 三者의 통합적 훈련에 對하여 唯一 最高한 司命이 되는 것이니 童話의 教育的 效果 社會의 使命 文化的 價値가 또한 常料 以上으로 重大大하지 아니하냐 어는 意味로 말하면 童話는 兒童 教育의 核心 乃至 全部라 할 것이오 文化鍾毓의 基本乃至樞紐라 할 것이니 社會의 將來를 重大히 아는 만큼 兒童을 重大히 아는 것처럼 아동의 教育을 重大히 아는만큼 동화를 重大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童話의 善不善 童話作家의 得不得은 그 影響 關係가 實로 尋常치 아니한 것이 있다.” 최남선, 「동화와 문화」, 《동아일보》, 1925. 8. 12.

44) 최남선, 「동화와 문화」, 《동아일보》, 1925. 8. 12.

이다. 하지만, 아동문학 연구 인력의 미비와 자료 보존의 불모성으로 인하여 아동문학 형성기에 대한 연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새로운 아동문학사 연구를 위한 기초적 접점의 일환으로 아동문학 태동기의 모습들을 근대 계몽기라고 일컬어지는 1910년대 최남선의 아동문학 운동과 연관 지어 고구해 보았다. 실제로 최근 아동문학의 사적 흐름과 당대의 지형을 통시적인 문학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려는 노력들이 온축되어 가고 있다. 이는 분명 반가운 일이며, 아동문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젖힐 수 없는 새로운 계기이다. 하지만, 아동문학을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아동문학 연구자의 부족은 이 문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경사시킬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할 경우 일 방향으로의 경사가 미세한 맥락적인 사실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최남선과 1910년대 아동문학의 문제를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해 본 것이다.

실제로 한국 아동문학의 본격적 기원을 연 주체가 방정환과 1920년대 아동문학 인들임을 부인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910년대와 최남선의 아동문학 활동을 괄호쳐버림으로써 일어나는 아동문학사 연구 담론의 축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남선과 방정환의 아동문학 활동은 서로 대척적인 자리에서 단순히 차별점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적 연속성의 문제에서 접근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것은 1910년대 최남선이 아동문에 잡지 간행에서 이미 아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독자적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근대적인 아동문학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최남선을 다시 높이고, 방정환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시대적 상황 맥락에 따른 불가피성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점은 일반 문학에서의 최남선 연구와 아동문학에서의 최남선 연구가 미묘한 균열과 지층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최남선에 대한 관심의 다양성과 최남선이 발휘했던 다양한 역할의 권역들은 모두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가 아동문학자로 활동했다는 점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최남선은 아동문학 이론가, 아동문학 실천가와 구분되는 아동문화 개척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아동과 아동문학의 맹아가 촉발되는 근대 계몽기에 있어서 아동문학과 문화를 위한 토양 마련에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남선의 아동문학 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에 의해 또 다른 탐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1910년

대 아동문에 잡지에 대한 정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소년》; 《청춘》; 《붉은 저고리》; 《조선문단》; 《현대문학》; 《동아일보》
『육당 최남선 전집』(1~15권). 서울: 현암사, 1973.
- 권보드래(외), 『《소년》과 《청춘》의 창: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권복연, 「근대 아동문학 형성 과정 연구: 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99.
-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75.
- 김윤식, 「<소년>지의 허구성」. 『근대 한국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73.
- 김현숙, 「근대매체를 통해본 ‘가정’과 ‘아동’인식의 변화와 내면형성」. 『상허학보』 16집, 상허학회, 2006, 69~93쪽.
-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2.
- 김혜경,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 222~276쪽.
-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서울: 창비, 2006.
- 남기택, 「동화적 상상력과 근대문학의 성립」. 『인문학연구』 32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5~44쪽.
-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9.
- 박숙경, 「신문관의 소년용 잡지가 한국 근대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25~38쪽.
- 심명숙,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2.
- 염희경, 「한국 근대아동문단 형성의 ‘제도」. 『동화와번역』 11집,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197~230쪽.
- 원종찬,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140~152쪽.
- 윤석중, 『韓國兒童文學小史』. 『兒童文學의 指導와 鑑賞』.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62.
- 윤석중, 「아동문학 주변」. 《대한일보》 1969. 4. 7~1970. 12. 10.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서울: 일지사, 1978.
-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260~297쪽.
-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서울: 소명출판, 2005.
- 정선태, 「번역과 근대소설 문체의 발견: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서울: 소명출판, 2006, 38~60쪽.
- 조용만, 『육당 최남선』. 서울: 삼중당, 1964.
- 조용만·송민호·박병채,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민중서관, 1970.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 조은숙, 「‘아동의 발견’이라는 화두와 아동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형」.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9~24쪽.
- 조형근, 「‘어린이’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탄생」.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서울: 새길, 1997.
- 조희경, 「근대 계몽기 초기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41~54쪽.
- 최기숙, 「‘신대한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 생태학」. 『상허학보』 16집, 상허학회, 2006, 215~247쪽.
- 최기숙, 「‘어린이’와 어린이 문화의 탄생」. 『어린이, 넌 누구니?』. 서울: 보림, 2006.
- 최현식, 「1910년대 번역·변안 서사물과 국민국가의 상상력」. 『한국 근대 서사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 서울: 소명출판, 2005, 193~238쪽.
- 최현식,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1): <소년>지 시(가)의 근대성」. 『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07, 67~99쪽.
- 한기형, 「근대잡지와 근대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73~310쪽.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311~350쪽.
- 홍일식,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서울: 열화당, 1980.
- Crary, Jonathan/임동근(외 역), 『관찰자의 기술』. 서울: 문화과학사, 2001.
- Ariès, Philippe, *Centuries of childhood-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Vintage Books, 1962.
- Ariès, Philippe/문지영(역), 『아동의 탄생』. 서울: 새물결, 2003.
- 大竹聖美,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 관계사(1895~1945)』. 서울: 청운, 2005.
- 柄谷行人/박유하(역), 「아동의 발견」.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민음사, 2005.
- 柳父章/서혜영(역), 『번역어 성립사정』. 서울: 일빛, 2003.

국문 요약

아동문학의 형성에 관한 물음은 중요하다. 아동문학의 기원을 연 시기가 언제이며, 어떠한 양태로 진행되었는가를 고구하는 작업은 근현대 아동문학의 지표를 마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 운동이 아동문학의 본격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될 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육당 최남선의 아동문학 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문제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성인문학을 펼친 활동가로 각인되어 있기에 그의 아동문학적 행위는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탐구적 접근이 차단된 채로 피상적인 연설로 일관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정환의 아동문학 운동을 본격적이라 수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에는 석연치 않은 미비점이 전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최남선의 계몽적인 문학 활동이 아동문학의 시초적인 기원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남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단순히 방정환과의 대차대조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시대적인 연속성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10년대 아동문학의 문제를 최남선의 아동문학 운동과 관련지어 보다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10년대 아동 잡지에 대한 검토를 후속 과제로 남긴다.

● 투고일 : 2008. 3. 14.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아동문학의 기원(origin of 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의 태동(quickening of children's literature), 1910년대 아동문학(1910's children's literature), 최남선의 아동문예지 간행(Choi Nam-Sun's literary magazine publication for children), 아동문학사적 연속성(children's literature historical continuity).